

## 자성재료의 국제 규격 동향

손대락\*

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

자성재료의 국제 규격은 자성재료가 전기관련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ISO 보다는 주로 IEC 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)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다. IEC에서 국제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 (TC : technical committee)가있으며, 이 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규격을 제안 할 수 있다. 자성재료와 관련된 TC는 TC68 (magnetic alloys and steels), 과 TC51 (magnetic components and Ferrite materials) 이 있다.

TC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작업그룹(working group)이 구성되어 있으며, 각각의 작업그룹에서는 각 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.

TC68의 경우 작업그룹은

WG 1 : Classification, composition and properties of magnetic materials

WG 2 : Measuring methods for determining magnetic and other physical properties;

WG 3 : Terminology;

WG 4 : Magnetic alloys of iron-nickel, iron-cobalt, iron-aluminium and iron-aluminium silicon;

WG 5 : Hard magnetic alloys and ceramic materials,

로 되어 있고 TC51의 경우는

WG 1 : Ferrite and powder cores

WG 9 : Inductive components

WG 10 : Magnetic Materials and Components for EMC Applications

으로 되어있다.

현재 대한민국은 TC51 과 TC68에 모두 P-회원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을 제안 또는 개정하거나 규격을 제안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. 본 발표에서는 TC68 및 TC51 관련된 자성재료의 규격과 현재 활동 중인 자성재료의 국제 규격화에 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.